

# 전남 연근해 참조기 어획량 1년새 반토막

### 전국 연근해어업 생산량 44년만에 100만t 붕괴 어족자원 남획 ... 고수익 양식어업 전환 영향도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가까운 바다)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t 밑으로 떨어졌다. 어민들이 수익이 높은 양식어업에 눈을 돌리고, 일부 어종의 경우 남획으로 인해 자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역시 참조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는 위성을 활용한 효율적 어업을 통해 100만t을 회복할 방침이다.

13일 전남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2만3447t으로 2015년(105만8000t)보다 12.7% 줄었다. 어종별로는 특히 참조기(42%)·전갱이

(50%)·멸치(33.4%) 등의 감소폭이 컸고, 오징어(21.8%)·꽃게(24%)·갈치(21.5%) 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남만 한정하면 2015년 13만4000t에서 2016년 12만1000t으로, 1만3000t(9.7%)이 줄었다. 대표적인 급감 어종은 참조기로 2만t에서 1만1000t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반해 첫새우는 9000t에서 1만2000t으로 증가했고, 참홍어는 자원이 회복되면서 허용 어획량(TAC)을 지난해 158t보다 22t 늘어난 180t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연근해는 특히 수온에 민감해 일부 어종의 경우 어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멸치·오징어·참어 등 자원량이 많은 어종의 경우 해양관측 위성(천리안) 등 첨단 장비를 활용, 어군을 탐색하고 어황 정보를 어민들에게 전달해 2020년까지 해마다 5%씩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황 예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자원량도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이 잡는 고등어, 갈치 등 이른바 '남획형' 어종의 경우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중국·일본과 자원관리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중·일 어업공동위 협의를 통해 고등어 등 동중국해 회유성 어종에 대한 공동 자원관리를 제안할 예정이다.

갈치의 경우 한·일 어업협상에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꽃게, 참조기 등 남획으로 자원량이 많이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어민 고기 어획 금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연 2%씩 어획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꽃게 업종의 경우 친환경 생분해성, 이른바 '씩는' 어구를 처음 보급해 버려진 페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족 자원 관리 차원에서 양식 기술 개발, 총허용어획량제(TAC) 개선, 어민 물고기를 생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줄이기 위한 양식어장의 배합사료 단계적 의무화, 휴어기(어업을 쉬는 기간) 적용에 대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구 자원봉사센터 '액션데이' 선포식 / 광주시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13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2017 자원봉사 액션데이 선포식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도시설 개량·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전남도 물 공급사업 1300억 투입

전남도가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올해 1292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내역별로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을 위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2개 지구 799억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2개 지구 147억원이 들어간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0개 지구 147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4개 지구 185억원, 고도 정수처리시설 2곳에 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수도물 생산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치 후 20년 지난 상수도관 정

비사업을 통해 구레 28km, 고층 52km, 영광 58km, 신안 21km 등 159km를 정비한다.

올해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처음으로 국비 99억원이 지원된다. 전남 노후 수도관은 3천725km로 전체(1만7550km)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전체 상수도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20%(141억원) 늘어난 85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2015년 말 기준 91.6%인 상수도 보급률을 올해 92.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고령자 이용 농기계에 안전 센서 부착한다

### 전주 등 3곳 시범 서비스

노인이 모는 농기계에 센서를 붙여 차량 접근을 미리 알리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정부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전주·안동·포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국민 생활 불편해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공공 영역에 도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돕는 것이 목표다.

휴먼미디어테크는 전주에서 '청각장애

인 생활안전 서비스'를 선보인다. 청각장애인이 착용하는 IT(정보기술) 기기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을 진동·경고 화면으로 알려주며, 동시에 가족 등에 위치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청각장애인 200명에게 이 디바이스를 보급하기로 했다.

안동에서 시행되는 광진기업의 '고령자 농기계 안전운전 서비스'는 경운기 등 농기계 앞뒤에 센서 등을 붙여 주의사항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안동시는 3월까지 고령자 300명의 농기계에 이런 기능을 갖춘 스마트 디바이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구속기소된 의원에 의정활동비 안준다

### 광주시의회, 조례안 발의 전남지역 지방의회는 소극적

광주시의회가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와 예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발의로 광주 지방의회는 모두 관련 조례안을 정비했지만,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여전히 이에 소극적이어서 대조적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의회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이정현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

비와 예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 시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광주와 동·남·북·광산구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며, 시의회와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반면 전남지역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했는데도 실적이 미흡하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천일염 수출 희망기업 24일까지 공모

### 2019년까지 6개 기업 선정

전남도가 오는 24일까지 천일염 수출에 나선 지역업체를 공모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나서 올해 2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총 6개 기업에 기업당 50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 소재 천일염 생산·수출업체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다. 대상 품목은 천일염 및 천일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이다. 수출상품 용기 및 포장 등 개발 비용, 해외 박람회 참가, 외국 바

이어 초청 등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수출 실적, 품질인증 실적, 해외시장 개척 실적, 해외 수출 가능성 등 서면평가와 품질·안전성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상위 2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산 천일염은 지난해 183만5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양근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천일염 생산은 늘고 있으나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공무원 언제 어디서나 공부 가능 'e-러닝 서비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4일부터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나라배움터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나라배움터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e-learning)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나라배움터는 공직가치, 리더십, 어

학, 경제·경영, 인문소양, IT 분야 등 공무원 교육 관련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나라배움터 아이디(ID)를 활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80여 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이러닝 사이트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고, 온라인 공개 강좌도 들을 수 있다.

이밖에 300여 개 모바일 과정을 제공하고,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도 학습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 2017년 아파트, 상가, 토지시장의 대전망!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b>광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월 15일(수) / 오후 2시~5시</li> <li>· 장소: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3층 다목적실 / 전남 광양시 중동 1658 (광양 백운초등학교 건너편)</li> </ul>
<b>서울 여의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월 20일(월) / 오후 2시~5시</li> <li>· 장소: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 (여의도역 4번출구 3분거리 직진 삼성모바일서비스센터 건물 6층)</li> </ul>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강의내용**

- ✓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
-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수도권 및 지방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 ✓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